

2016 AUTUMN Vol. 31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News

# 박물관 풍경

## 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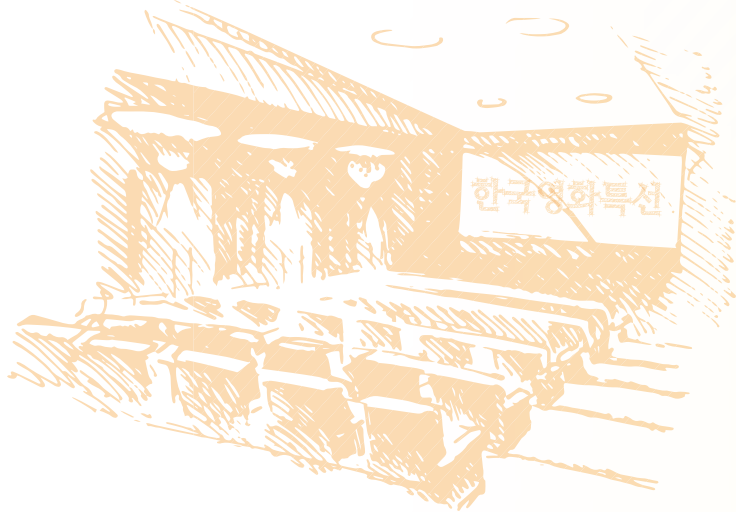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 영화 속 인천 읽기

글 · 배성수(전시교육부)

매주 일요일 밤에 방영되는 ‘한국영화특선’이라는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한국 고전영화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빼놓지 않고 챙겨보는 편입니다. 이야기 구성도 영성하고 짜임새도 떨어지지만, 그 시절 특유의 억양과 유행했던 차림새를 살펴보는 나름대로의 쓸쓸한 재미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영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식이 변해갔습니다. 영화 내용이나 배우의 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 풍경과 거리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생겨난 것입니다. 나의 ‘영화 속 인천 읽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화면 속에 등장하는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인천의 모습이 그저 흥미롭기만 했습니다.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눈에 익은 건물이나 거리를 찾아내면 알 수 없는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둘 영화 속 인천을 찾아가며 들었던 생각은 “왜 인천이었을까?”였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는 그 곳이 인천임을 애써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아도 그 곳은 굳이 인천이 아니어도 되는 장소입니다. 심지어 분명 인천의 어느 거리이지만, 영화는 그 곳을 서울이나 부산으로 이야기합니다. 금방이라도 패싸움이 있을 것 같은 항구, 공장의 모습이나 이색적인 거리 풍경이 감독의 눈길을 끌었던 것일까요? 유독 액션이나 첩보 영화에 인천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의 영화에서 인천은 배경을 제공하는 하나의 세트장일 뿐입니다.



참 많은 영화가 인천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인천을 찾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은 여전히 세트장 일 뿐 영화 속에서 인천과 인천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 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배 한 척 살 돈을 마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던 <파이란>의 강재, 퇴근길 전철 안에서 풍기는 돼지갈비 냄새가 싫어 서울로 이사했다는 <고양이를 부탁해>의 해주야말로 바로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인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일요일 밤마다 영화 속에서 인천을 읽어내려는 나의 습관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화면 속 낮익은 거리의 모습을 찾아내고는 묘한 성취감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배우들의 한 마디 대사에 인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조우성      **발행일** 2016년 9월 30일  
**기획·편집** 전시교육부 이성용, 안성희  
**자원봉사자** 구자인혜, 김명순, 문경숙, 엄경미, 최정미  
**표지·글** 조오다      **제호** 이태용      **디자인·인쇄** 은정문화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 TEL. 032-440-6750 FAX. 032-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 [www.facebook.com/icmuseum](http://www.facebook.com/icmuseum)

## CONTENTS 2016 AUTUMN Vol. 31

- 02 창으로 보는 풍경**  
영화 속 인천 읽기
- 04 기획기사 I**  
영화 속 인천 또는 인천의 영화
- 06 인터뷰**  
성실한 장인, 인영 극장 간판 화가 김기봉
- 07 아미카툰**  
아미점집 - 환등기
- 08 기획기사 II**  
그리운 추억, 그 시절의 극장들
- 10 시간을 달리는 공간 ⑨**  
한국 최초의 극장, 121년 전에 문을 연 애관극장
- 12 기획기사 III**  
인천, 영화를 추억하다!
- 13 청소년 기획**  
인천에서 영화찾기
- 14 청소년 기획**  
별별씨네마 - 별별영화 다 모였다!
- 16 비지정문화재의 흔적을 찾아서 ②**  
인천의 문화지도 - 문화 향수의 추억, '웃터굴'
- 18 박물관 소식**  
전시 / 교육 / 행사
- 20 유물 소개**  
램프식 환등기

## COVER STORY

### 저항과 굴욕의 바다를 기억한다



산업혁명이 완성된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들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시장 확대 정책에 따라 조

용했던 인천 앞바다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조선은 개항기를 맞게 된다. 당시 급변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무능한 권력자들의 쇄국과 개항의 갈등은 한반도 진출을 노리는 열강에게 병인양요(1866년)와 신미양요(1871년) 그리고 운양호 사건(1875년) 등 연이은 무력 침공의 빌미를 주었고 백성들의 처참한 희생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1876년 2월 26일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저항과 굴욕 그리고 아픔이 반복되는 역사를 겪어야만 했던 인천 앞바다. 140년 전 영종진 피격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또다른 책임이다.



# 영화 속 인천 또는 인천의 영화

글 · 강성률(영화평론가, 광운대 교수)



항구의 일바



섬마을 선생

## 한국 영화사 속의 인천, 항구 느와르와 멜로드라마의 장소

한국 영화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철저하리만치 '서울공화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 사는 감독과 배우들이 서울을 배경으로 영화를 촬영해서 서울에서 먼저 개봉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렇게 공고화된 체제는 여전히 작동 중이다. 때문에 한국 영화사에서 지역을 그린 영화들은 대부분 서울의 시각으로 지역을 해석하거나 재현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인천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영화사라는 큰 틀에서 바라본 인천은 서울과 변별되는 인천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서울과 가깝지만 서울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지니고 있는 도시. 그렇다. 인천은 항구 도시다.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탄을 지척에 두고 있는 항구 도시.

한국 영화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인천은 항구의 비정한 폭력과 욕망을 전시한 '항구 느와르(noir)'이다. 영화사가 고(故) 이영일 선생은 이를 '마도로스 영화'라고 했지만, 이런 표현은 낭만적인 요소가 다분해 오히려 비정한 폭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항구 느와르가 더 타당해 보인다. 이런 영화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오랜만에 항구로 돌아오는 배에는 한 사나이가 있는데, 그에겐 항구를 둘러싼 사연이 있었다. 조직에서 일했던 그에게는 연인이 있고 미래가 있었지만, 그는 보스나 상대 조직에게 버림을 받고 항구를 도망가듯이 떠나야 했다. 돌아온 항구

는 변해 있다. 옛 연인은 행방을 알 수 없고 자신의 수하들은 이미 다른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 우연히 들른 한 카페에서 요령의 여인을 만나 서서히 과거를 찾아가는 그는 결국 옛 사랑을 만나고 복수도 감행한다는 내용이다.

〈제삼부두 영변지〉(김시현, 1966), 〈비정의 항구〉(강민호, 1968), 〈항구 8번가〉(임원식, 1969), 〈돌아온 선창〉(전조명, 1969), 〈항구 무정〉(정진우, 1970), 〈항구의 왼손잡이〉(강범구, 1971), 〈돌아온 항구의 사나이〉(전우열, 1970), 〈비 나리는 선창가〉(임권택, 1970) 등의 리스트를 보면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던 항구 느와르는 액션 영화의 한 갈래로서 인천의 북성포구를 비롯한 동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촬영되었다. 최근 〈신세계〉(박훈정, 2013)의 주요 장면을 동인천의 여러 지역에서 촬영한 것도 이 장르의 흐름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항구 도시 인천을 그린 또 다른 영화로는 이별을 소재로 한 멜로드라마를 들 수 있다. '목포의 눈물', '섬마을 선생', '가슴 아프게', '동백 아가씨' 등 영화보다 주제곡이 더 유명한 이 부류는 주제곡과 영화가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가운데 인천의 대이작도에서 촬영된 〈섬마을 선생〉(김기덕, 1967)은 항구의 이별을 잔잔한



고양이를 부탁해

정서로 그린 대표적인 영화이다. 섬마을에 온 선생을 사랑하는 섬처녀의 순정이 절절하게 살아 있어 개봉 당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지금도 남자 주인공을 싣고 떠나는 연락선을 섬의 높은 곳에서 바라보던 장소, 그 자리에서 여배우 문희가 잡고 있던 소나무를 ‘문희 소나무’라고 칭할 정도이다.

그런데 항구 느와르와 이별의 멜로드라마는 인천의 문화와 특성을 살린 영화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영화를 보면 두 장르는 인천과 부산을 영화로 소비하는 서울의 시선이 강하게 들어있다. 서울이 바라본 항구도시로서의 인천과 부산은 폭력의 전시장인 항구 느와르와 이별의 장소인 항구였던 것이지 그 안에 인천의 모습이나 부산의 생활이 재현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인천을 제대로 그린 영화를 만나려면 더 기다려야 했다.

### 진정한 인천 영화란?

지금까지도 인천을 가장 잘 그린 영화는 〈고양이를 부탁해〉라고 생각한다. 섬세한 감수성이 살아있는, 동인천을 배경으로 한 성장 영화. 영화에 등장하는 다섯 여성은 인천에서 가장 좋다는 여상을 졸업하지만 이내 팍팍한 현실과 대면해야 한다. 한 여성은 서울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인천에서 집안일을 돕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랜만에 모여 회포를 푸는 것이지만, 이내 불화가 발생한다. 사회 생활을 하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영화의 주 배경은 동인천이다. 이들은 휴일에는 월미도에도 가고, 북성포

구에도 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에게는 희망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이들이 모임을 가질 때 언제나 여왕처럼 군림하는, 유일하게 남자 친구가 있는 여성은 실상 서울에서는 무시당하는 경리로 일하고 있고, 부모님은 이혼해 친구들을 만나 유세를 떠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나머지 여성들은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 첫바퀴 돌듯이 일상을 맴돌고 있다.

이 여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인천이라는 도시가 영화 속에 재현된다. 새롭게 개발된 연수구가 아니라 오래된 동인천을 통해 인천의 역사를 말하면서 동시에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말한다. 인천은 서울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규정되었다. 인천은 특이한 지역이다. 근대의 개항 도시이면서 공업화가 진행된 산업 도시이고, 항구 도시면서 공항 도시이다. 게다가 여러 섬들로 구성된 지역이면서 서울의 관문이다. 이런 특성은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고양이를 부탁해〉에는 인천이 단지 인천으로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인천에 머물지만 인천보다 서울을 욕망하는 모습, 서울에서 경비로 일해도 인천에 와서 유세를 떠는 모습 등이 살아 있다.

이와 반대로 인천에서 촬영했고 인천 노동자의 사연을 담았고 전국적으로 흥행했지만, 〈파업전야〉(이은·이재구·장동홍·장윤현, 1990)는 인천의 영화로 인식되기보다는 한국의 노동 현실을 신랄하게 그린 영화로 평가받는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음식을 둘러싼 전통과 현대의 차이, 또는 음식을 통한 치유를 그린 〈북경반점〉(김의석,

1999) 역시 음식 영화로 평가받지 인천의 영화로 평가받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특정 지역을 그린다고 해서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영화가 될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사실과 조우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선에서 〈인천상륙작전〉(이재한, 2016)을 생각해 본다. 7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이 영화를 과연 인천의 영화, 또는 인천을 잘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인천을 잘 그린 영화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이 영화에는 인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다. 영화가 필요로 한 것은 6·25전쟁에서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은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소재이지, 인천이라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 그려진, 공간 치하의 인천에는 사람이 없고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요원의 활동만 돋보일 뿐이다.

현재 지역 영화를 만들고 있는 곳은 제주가 유일해 보인다. 오히려 제주는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고, 현대사의 아픈 기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그것이 가능해 보인다.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오멸, 2013)을 비롯해 꾸준히 영화를 만들고 있는, 오멸 감독을 위시한 제주 영화인들은 서울의 시선에서 영화를 만들지 않고 제주인의 시선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자신들의 감정을 담은 영화를 만들고 있다. 이제 물어야 한다. ‘인천의 영화’는 있는가? 그 해답을 나는 빨리 듣고 싶다. 인천의 영화인이 만든, 인천의 역사와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담은 영화를 만나고 싶은 것이다.



공포의 황금부두



신세계



만석동 북성 포구

# 성실한 장인

## 인영(인천영화)극장 간판 화가 김기봉

글 • 최정미(자원봉사자)

사진 • 엄경미(자원봉사자)



영화 속 배우들의 극적인 장면이 극장 전면에 걸려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멀리서도 상영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큰 간판이었다.

인천 지역 극장 간판을 그린 김기봉 선생님은 영화 간판의 생명은 무엇보다 배우와 닮게 그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틸 사진 그대로 그리기는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 “타고난 손재주도 중요하지만 미술에 대한 열정도 중요해요”

1931년 동구 금곡동에서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인천에 살고 있죠. 어릴 때부터 타고난 손재주가 있긴 했어요. 형님이 극장에 포스터(전단지) 붙이는 일을 했는데 벽에 붙은 전단지는 잘 떼어지지 않지만 그게 비가 오면 잘 떨어져요. 형님이 그걸 집에 갖고 와서 따라 그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또 형님께서 신포동 표관극장(키네마 극장)에서 일했는데 크게 그리는 건 아니고 제목을 쓰는 일이었는데 옆에서 거들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해방 후 인영극장 간판을 맡아서 그렸는데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지. 인천 간판은 서울보다 특징이 없었거든요. 서울은 극장이 많아서 그만큼 경쟁해야 되니까 그림이 화려했어요. 서울에 있는 극장들 간판을 보러 경인선 타고 많이 갔었죠. 입체적이고 다양한 그림을 인천에도 그리고 싶었거든요. 입체적인 그림이라는 게 얼굴이나 몸이 간판 밖을 나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 당시 인천 간판

에는 제목이랑 그림만 그려져 있었는데 특색 있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극장 주인도 좋아하고 관객들 호응도 좋았어요.

간판 크기는 열자에 열자 3개 크기여서 이음새에 못 자국이 나고 도당으로 하니 무거웠어요. 호떡을 사가지고 가 서울영화관 간판부 조수에게 물어보니 광목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광목에 그림을 그리니 이음새에 바느질로 꿰매면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당장 와서 도당을 건너내고 광목을 걸어 봤어요. 그런데 광목에다 그리니 그림이 번져 또 서울로 가서 어떻게 하나 물어봤더니 야교를 묶게 칠한 뒤 페인트를 칠하라 했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수성페인트로 칠해서 수월하게 됐지요. 서울에서 많이 배워서 인천에서 개척했어요. 이렇게 정성을 다했더니 그 당시 네 개 극장(애관극장, 키네마 극장, 문화극장, 시민극장) 일을 혼자 맡아 하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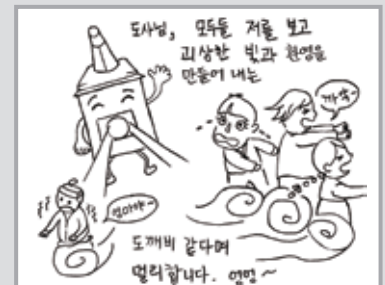


극장 간판 화가  
김기봉 선생님

## 야미카툰

## 야미점집 - 환등기

조유미(전시교육부)



## '성실'하지 않으면 못 하는 일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일은 아니잖아요. 뭐 아침 9시부터 6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간판 작업이 다 끝나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요.

도시락을 싸서 다녔어요. 그 일이 재밌었어요. 잘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도 배우러 많이 왔어요. 조수도 여러 명 있었는데 간판 미술은 잘하지 않으면 손님들의 발길도 끊기니까 써 주지를 않아서 열심히 해야 했죠. 보통 간판 완성까지 2~3일은 걸려요. 하루 만에 그리는 건 어려웠고... 지금의 영화관에는 상영관이 많아서 아마 못 그렸을 거예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일도 빨리 끝나고 하니까요.

## 선명한 색감과 화려함을 가진 그림을 그렸죠

아무래도 상업적인 그림이다보니 화려할 수밖에 없어요. 극장들이 동시에 같은 영화를 보여주니까 관람객의 발길이 중요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서 외국 영화에 비해 그리기가 어려웠어요. 특징이 있으면 그리기가 편하잖아요. 그 대신 제 그림의 특징인 색감과 화려함을 살려서 그렸죠.

## '예술성'과 '정신'이 담긴 그림입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 손으로 그리는 시대가 지나가고 사진(미디어)이 대체하는 시대가 왔죠. 그렇지만 사진이 담을 수 있는 것과 사람이 직접 성의 있게 그린 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적인 면, 육감이라고 할까요. 기계가 찍는 것과는 다른 예술이죠. 재료가 좋다고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신과 기술이 담겨 있어요. 아무리 상업성을 갖고 있는 예술이지만 그 창의성을 기계는 못 따라와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남보다 술선수범한 정신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14세 어린 나이에 시작하여 72세까지 영화 간판에 대한 열정으로 인천 지역 극장을 빛내 주셨던 김기봉 선생님은 말하는 중간중간에도 꾸준한 성실함을 강조했다. 자신의 삶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선생님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감회가 밀려오셨는지 눈시울을 적셨다. 단순한 글자 간판뿐이던 인천에 영화 간판을 발전시키기 위한 무수한 발걸음과 새로운 시도를 한 선생님의 열정은 인천 지역 영화 발전에 충분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 그리운 추억, 그 시절의 극장들

글·이원규(소설가, 전 동국대 교수)\*

\*이원규

1947년 인천 출생. 『월간문학』 신인상, 『현대문학』 장편 공모 당선으로 등단. 동국대 국문과, 문예창작과 교수로 일함. 『훈장과 골래』, 『황해』, 『천사의 날개』, 『조봉암 평전』, 『마지막 무관생도들』 등 출간.

## 무성영화의 추억

70년 인생을 인천에서만 살았다. 기억의 골짜기 가장 깊은 곳에 들어 있는 영화관은 고향 서쪽의 간이극장이다. 검바위 마을(서구 검암동) 신작로 옆에 있던 교실 두 개쯤 되는 토담 건물로 가운데 레일이 달린 칸막이 문짝이 있어 떼어낼 수 있었다. 평소에는 청년들의 회의장으로 쓰거나 여성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쳤던 것 같다. 주말 저녁 칸막이를 열고 돈을 받고 영화를 돌렸다.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1955년) 여름밤에 누나들 손에 이끌려 거기 가서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 등 영화 몇 편을 보았다.

“아, 슬프도다! 운명의 장난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나!”

변사의 비장한 대사에 곳곳에서 탄식과 울음소리가 들렸다. 내 왼쪽 오른쪽 누나들은 어깨를 들먹이며 울었다.

당시 서쪽에서 인천 다운타운까지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렸다. 오랫동안 서쪽출장소에서 일하신 아버님이 남부출장소(송의동 장안극장 근처에 있었다)로 전근하셨다. 일요일 당직을 하는 날이면 두 살 위의 형과 나를 데리고 나가셨다. 중학교부터 시내에서 공부할 것이니 애들에게 주눅들지 않으려면 도시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짜장면을 얻어먹고 아버지 직장 가까운 곳에 새로 생긴 장안극장에 갔다. 「OK 목장의 결투」였다. 검바위 마을 간이극장에서 가마니 떼기에 앉아 흑백 무성영화를 본 내게 총천연색 토키영화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 장안극장은 건물이 거의 그대로 살아 남아 어쩌다 그 앞을 차를 몰고 달리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형과 함께 도원동 용사회관에도 갔다. 붉은 색 페인트로 쓴 세로 간판을 단 목조건물, 입장료가 장안극장의 1/3 값이었던 것 같다. 거기서는 변사가 해설하는 무성영화를 보았다.

“정의의 수호자 우리의 아란랏트! 어찌 불의를 보고 참는단 말이나! 악당아, 내 총탄을 받아라! 탕 탕 탕.”

우리 형제는 권총 뽑아 시격하는 품에 변사의 해설을 흥내 내면서 도원동, 송의동 거리를 걸었다.

1960년 중학교 입학으로 시내로 나온 나는 송림동의 고모 댁에 기숙했다. 고모가 한없이 착한 터라 신나게 놀러 다녔다. 강화에서 유학 온 친구 하숙방에 교복을 벗어던지고 러닝셔츠 바람에 가난한 집 검팔이 소년 차림을 하고 나섰다. 단속에 걸리니까 불량소년처럼 하고 나선 것이었다.

그때 인천은 갑자기 극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내가 다닌 울목동의 상인천중학교(인천고등학교 병설학교였다) 반경 1킬로미터 안에 애관극장, 동방극장, 문화극장, 미림극장, 장안극장, 세계극장, 키네마, 현대극장, 인천극장, 시민관 등이 있었다. 도대체 어느 도시가 그랬을까. 1960년대 초반은 인천의 문화 향수가 전국 최고였던 것 같다.

상이군인들이 운영했던 용사회관은 우리학교에서 지척이었는데 이 무렵에 사라졌다. 엉성한 목조건물에 내부 가장자리에 나무의자들이 있었던, 그리고 가마니를 깔아놓았던 극장. 빗겨가는 빗줄기처럼 화면에 빗줄이 가고 걸핏하면 필름이 끊어져 중단되던 곳. 몰래 소변을 본 탕으로 지린내도 났던 곳. 무성영화 상영관이어서인지 가장 그리운 추억 중의 하나이다. 몇 해 전 친구들과 차를 타고 도원동 거리를 지나다가 용사회관 뒤에 살았던 고등학교 동창 이이현 형에게 물어보았다.

“그 자리에 송무관이라는 당수도장이 들어섰지. 유용규라는 사람이 사범으로 와서 닫혔던 문을 열고 당수를 가르쳤어.” 이 형에게 들은 대답이다.

중학교 2학년은 악동들과 어울려 놀기에 참 좋았던 시절, 나는 공부는 제쳐놓고 야구를 하고 영화를 보러 다녔다. 어느 날은 P와 애관극장으로 갔다. 극장 건물 아래쪽 자전거포가 있던 좌측면에 작은 골목이 있고 극장의 수직 벽에 마치 군사 요새의 총안(銃眼)처럼 창문들이 몇 개 뚫려 있었다. 여름이라선지 창문은 열려 있었다.

P는 자기 친구네 집인 자전거포에서 의자 하나를 빌려와서는 담장 밑에 놓았다.

“저건 변소 환기창이다. 네가 처음이니 먼저 올라가라. 창문으로 머리만 들이밀어라. 내가 엉덩이를 밀어 올릴 테니까.”



얼떨결에 그렇게 했는데 내부로 거꾸로 매달려 안을 들여다보니 소변 칸이었다.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 내려섰다. 100년의 전통을 가져 인천의 명소가 된 애관극장. 번소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간 건 상습범 P 때문이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은 발힐 수 없다. 그는 그렇게 놀면서도 공부를 잘했고 뒷날 관료가 되어 고향 인천시의 고위관리로 일하고 은퇴했다.

## 예술적 감성을 키워준 애관과 키네마

애관은 더 큰 추억이 있다. 그해에 「흑인 올훼」(원제 Negro Orphuel)를 단체 관람으로 간 것. 그리스 신화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현대적 재변용으로 제작한 음악영화로서 세계 영화사상 손꼽히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서울의 대한극장으로 가서 70mm 대화면으로 본 「벤하」보다도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집간 둘째 누나는 나를 음악과 문학으로 이끌어준 분이었다. 그 무렵에 친정에 왔고 나는 누나와 함께 다시 애관으로 가서 「흑인 올훼」를 또 보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두 번을 내리 보았으니 세 번을 본 것이다.

그리스 신화를 글룩이 오페라로 작곡해 성공하고, 100년이 지나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영화를 맨 먼저 보고 신화를 읽었고 다음에 오페라를 들었다. 5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 영화의 「카니발의 아침」 OST와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부른 크로스오버를 좋아한다. 신화에 나오는 해원(解冤) 모티브가 좋아서 오페라도 즐겨 듣고 특히 마리아 칼라스가 부른 아리아 '에우리디체를 돌려주오'를 좋아한다. 이 아리아는 오르페오 역이 부르는 곡, 원래 남성 거세 소프라노인 카스트라토가 불러야 하나 칼라스의 곡이 명음반이다.

고등학교로 올라갈 무렵 테너 탈리아비니가 출연해 독일어로 「나를 잊지 마세요」를 부르는 「물망초」(독일과 이태리의 합작영화였다)를 애관에서, 라 스카라 오페라 극장 공연을 필름에 담은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키네마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보았다. 캄캄한 데서 자리를 찾아갈 때는 손을 잡았으나 막상 나란히 앉아 관람할 때는 손을 잡지 못했다. 인천고 1학년

때 교지 「미추홀」에 음악에 관한 글을 쓰라는 선생님의 권유가 있었다. 나는 오페라 해설을 쓰겠다고 대답했다.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쓰고 싶었으나 여자 친구가 말했다. “나하고 같이 본 걸 써야 오래 추억에 남잖아.”하고 시키는 대로 했다.

인천에 극장들이 많아서인지 애관 동방 문화 키네마 미림은 개봉관이 되고 나머지 몇 개 극장은 재개봉관, 또 다른 몇 개는 동시상영관으로 격이 달라졌다. 동시상영관은 시간을 죽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죽치고 있기에 좋은 곳이었다. 그리고 필름 한 질을 갖고 두 개 극장이 돌렸다. 영화 1편의 릴리스는 대략 4개, 두 극장이 시간차를 계산해 시작하고, A극장이 2개를 돌려 3번으로 넘어갈 때 B극장 직원이 1,2편 릴리스를 받아 자전거에 싣고 댈라리는 것이었다. 필름이 오지 않으면 중간에 기다렸다.

##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

세월이 흐르며 그 많던 극장들은 문을 닫고 이제 애관 하나만 남았다. 대신 이곳저곳 복합 상영관이 들어섰다. 대학 국문과를 가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했던 둘째 누나, 내게 감성을 일깨워주며 소설가가 되기를 바랐던 누나는 세상을 떠났고 애관은 그 자리에 지금도 살아 있다. 오페라 「아이다」를 교지에 쓰게 했던 여자 친구는 어디 사는조차 모르고 키네마 극장은 주차장이 되어 있다. 그녀와의 추억은 모교 백주년기념관에 남아 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1963년 교지 「미추홀」, 모교에 갈 때면 그것을 펼쳐 내 글을 읽으며 50년도 더 된 추억을 더듬는다.

추석 연휴에 들렀던 인천시립박물관, 「인천, 어느 날 영화가 되다」 전시는 잊었던 옛일을 고스란히 되살리게 해 주었다. 당시에 거리에 내걸었던 영화 포스터, 입장권, 릴리스 필름 롤, 게리 쿠퍼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멋들어서 그려진 커다란 간판을 머리에 인 애관, 미림, 동방, 키네마, 문화, 세계 등 극장 사진들이 손짓하며 잊었던 기억을 오롯이 떠오르게 만들었다. 모두 아련한 그리움 속의 추억이다.



1960년대 초반 인천은 반경 2km 안에 십여 개의 극장을 가진 최고의 영화 문화 도시였다. 애관극장과 키네마극장은 오락을 넘어 격조 높은 예술 영화를 상영해 시민들의 문화 향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그 시절 인천은 지금과 달리 문화 예술이 풍성한 도시였다.

## 한국 최초의 극장 121년 전에 문을 연 애관극장

글·김시연(시인)

‘보는 것을 사랑하라. 애관(愛觀)’.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에 있는 애관극장의 뜻이다. 극장 가운데 이보다 더 적합한 이름이 있을까. 애관극장은 121살 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극장이다.

을미개혁이 단행된 1895년, 현재 애관극장이 있던 자리에 ‘협률사’라는 국내 첫 사설 공연장이 생겼다. 이는 1902년 서울 정동의 협률사보다 7년, 단성사보다 12년, 이인직이 1908년에 창설한 원각사보다 14년 앞선 것이었다.

협률사는 부산 출신 떠꺼머리 총각 옛장수라고 불렸던 ‘정치국’이 세웠다. 인천에서 큰 돈을 번 그는 지금 애관극장 자리에 벽돌집을 지어 공연장을 열었다. <흥부놀부전> 인형극에서부터 신파극, 창극, 남사당패들의 땅재주 등 각종 공연이 이 무대에 올랐다. 1902년 국내 극단의 원조로 알려진 임성구의 혁신단이 <육혈포강도>를 공연하기도 했다. <육혈포강도>는 인천 신파극의 효시로 기록될 만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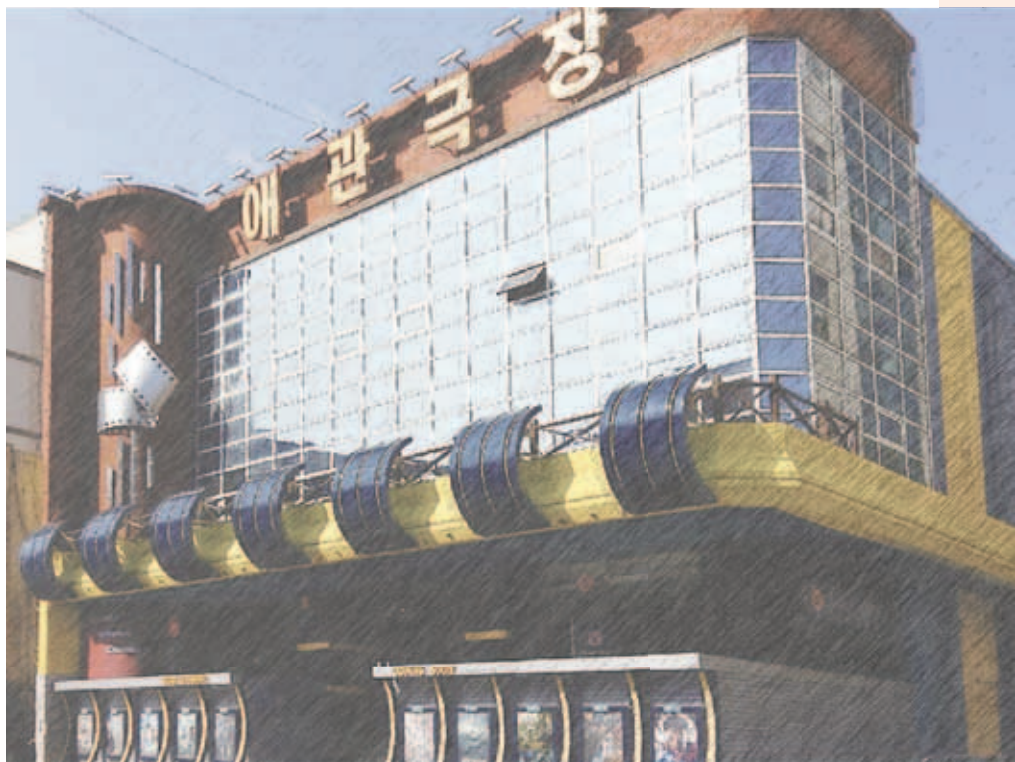
당시 신포동에는 협률사말고도 <표관>이라는 극장이 문을 열었다. <표관>은 800석을 갖춘 대형 공연장이었고, 주로 일본 영화와 뉴스를 상

영했다. 이때 영화관 남녀 자리 배치는 시대상을 반영했다. ‘남좌여우’로 남자는 왼편에 여자는 오른편에 앉았다. <표관>은 해방 후 <문화관>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6·25전쟁 때에는 불에 타 없어졌다.

협률사는 개항장인 이름에 걸맞은 <축항사>라는 이름을 거쳐 1921년 홍사헌이라는 사람이 ‘애관’으로 바꾸었다. 이때 연극과 영화를 주로 올리는 상설관으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인천의 수많은 건물은 6·25전쟁 때 사라졌다. 애관극장 또한 불에 탔고, 1960년에 재건축해서 다시 문을 열었다. 400석 규모로 영화와 악극을 함께 보여주는 형식이었다. 애관극장에는 당대 내로라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왔다. 이미지, 나훈아, 하춘화 등이 오는 날에는 이들의 ‘쇼’ 또는 ‘리사이틀’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극장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경동 ‘시네마 거리’의 명성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어지다시피했다. 지금 애관극장의 대표이사인 탁경란 씨는 외환





위기 때 부도가 난 극장을 재인수했다. 탁 대표는 1960년 애관극장을 재건한 이봉열 씨에게서 1972년 극장을 인수한 탁상덕 씨의 막내딸이다.

CGV인천14의 등장도 경동 '시네마 거리'에서 자부심으로 극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 이들은 극장을 개보수하면서 시설을 정비하였지만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고 등장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동인천과 신포동 일대의 상권이 남동구 쪽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었다.

탁 대표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극장만은 지키라'는 선친의 유언을 따르고, 고향 인천에 '결초보는'하기 위해 애관극장을 영화마니아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키워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때 인천에는 영화관이 20개 정도 있었다. 서울에 이어 영화관 밀집도가 가장 많았다. 애관, 미림, 인영, 오성, 문화, 키네마, 동방, 동인천극장 등등. 부천사람이나 서울사람들은 '동시상영'하는 영화를 보러 인천을 찾기도 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시험이 끝나는 날이면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했다. 술한 사람들이 드나드느라 돌쩌귀가 닳았을 그 많은 극장은 다 사라졌다.

지금은 애관극장만 남아 있다. 딱딱하고 가파른 일상 길을 걷다 문득 애관극장 앞에 서면 오래 발길이 머문다. 비록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물 한편에서 잊혀진 청춘과 꿈이 슬쩍 고개를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 인천, 영화를 추억하다!

글 · 문경숙(자원봉사자)



대이작도



대이작도 입구



대이작도 '문희 소나무'

“해~당화 피고 지는 섬 마을에 무얼 하러 왔는가? 총~각 선생님!”

이 노랫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잔함을 안겨준 노래 ‘섬 마을 선생님’의 첫 소절이다. 개인적으로 인천 영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섬마을 선생님’이다.

순박한 섬 처녀와 서울 총각 선생님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영화로 1967년 김기덕 감독의 작품이다 배우 오영일, 문희, 이낙훈, 안은숙 등이 출연했다. 당시 KBS 이경재 씨의 라디오 드라마였는데 주제곡 ‘섬마을 선생님’을 가수 이미자 씨가 불러서 크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를 영화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이 영화의 흔적을 찾아 영화 촬영지였던 ‘대이작도’를 여러 번 다녀오게 되었다.

영화 속 환상을 갖고 떠났던 대이작도 ‘계남분교’.

그러나 현장은 영화 속의 이미지는 온데간데없고 폐허로 남아 있는 학교 건물과 이름 모를 잡초들만 무성하여 긴 시간의 흐름을 대신 말해 주고 있었다. 그 입구에는 영화 촬영지 안내 표지석이 덩그러니 서서 그 옛날의 영화 속 장소였음을 말없이 전해 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 놀던 운동장에서는 염소 한 마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것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고개를 쳐든다.

그 당시 영화 속 누나 등에 업혀서 학교에 오던 어린 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삶을 위한 물살을 가르고 있었다.

그에게 섬마을 선생님은 어떤 추억으로 남아있는지 물어보았다.

“전 어린나이여서 기억이 없지만 누나로 부터 전해 들었다. 영화 촬영 날이면 섬 전체가 특별한 잔치 분위기였다. 요즘도 이곳을 찾는 분들이 종종 영화이야길 해서 정말 그 당시 대단한 영화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라고 기억 속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교실 창문 너머에는 파란 바다가 선착장과 함께 나란히 펼쳐져 있다. 총각 선생님이 이 창문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먼 거리로 느껴지는 만큼 애련함 마음이 가슴에 서렸으리라.

사랑의 마음을 뒤로 하고 떠나는 배에 몸을 실은 총각선생님을 바라보는 마을 처녀 영주의 마음을 대신하듯 창문을 가리고 있는 칠허쿨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순박했던 그 시절의 사랑이 몽실몽실 포근하게 다가와 마음을 적셔준다.

선착장 언덕위에 한 나무가 꽃꽂이 서 있다. 극중 영주(배우 문희)가 기대었던 나무. 지금도 이 나무는 ‘문희 소나무’로 불린다. 나는 그 나무에 잠시 기대에 영화 속 순간에 잠겨본다. 영화 속 주인공의 아련한 마음이 전해진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울림이 있는 것은 오랜 영화가 안겨주는 추억의 맛이 아닐까 한다.



# 인천에서 영화 찾기

글 • 임찬이(신명여자고등학교, 4기 청소년 기자)

멘토 • 이다영(연세대학교)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중



영화 배경이었던 인천 열우물 마을



배우 김수현이 그린 원류환역의 자신



배우들의 뒤쪽으로 보이는 배경은 인천에 있는 열우물 마을이다.

출처 :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2013년 여름,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열풍을 일으켰다. 할리우드 못지않은 배우들의 연기와 감독,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이 멋진 영화를 탄생시키지 않았나 싶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다. 혁명 전사인 원류환(김수현 역)은 북한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 요원으로 선발되어 남파된다. 그러나 그가 북한에서 건네받은 지령은 동네 바보 역할이다. 그로 인해 달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와 간첩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내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화의 주된 배경이자 주인공 원류환이 동네 바보 역할을 수행한 '그 동네'이다. 그 정 깊은 동네는 실제로 인천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이다. 인천 부평구 안에 있는 이 작은 동네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워낙 규모가 작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탓에 서로 모르는 이웃은 없다. 이 동네의 정확한 명칭은 '열우물 마을'이다. 10개의 우물이 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실제 이곳에서 매년 열리는 '열우물 축제'에서 우물에 있는 물을 퍼 올려 뿌리며 소원을 비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동네에서 다양한 영화들이 촬영되었다. 영화 '악의 연대기'와 드라마 '나쁜 녀석들', '가면', '응답하라 1988', '태양의 후예' 등을 촬영하였는데,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로 이뤄진 마을 분위기가 대부분 어두운 면으로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의 모습은 재개발 사업으로 언젠가 사라질 것 같다. 바쁘게 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작고 소소한 이미지로 옛날의 향수가 깃들여있는 열우물 마을. 이곳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와 추억들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다.



## 별별씨네마 별별영화 다 모였다!

글 • 하재윤(계산고등학교, 4기 청소년 기자)

멘토 • 주은정(중부대학교)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어디론가 피서를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 역시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는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곳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고,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나자니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요즘 대체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동네에서 더위를 피하는 ‘동네 피서’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피서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찾아보았는데, 아주 특별한 곳을 발견하였답니다. 제가 찾은 우리 동네 피서지는 아주 작은 ‘영화 상영관’입니다. 영화관으로 피서를 가는 분들은 이미 많이 계시다구요? 하지만 제가 찾은 ‘우리 동네 영화 상영관’은 조금 특별한 곳입니다. 지금부터 이 특별한 영화 상영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인 부평구 갈산동 주민센터 3층(부평문화사랑방)에는 ‘별별씨네마’라는 작은 영화 상영관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독특한 ‘별별씨네마’는 동네 주민들에게 다양성 있는 영화를 상영 해주고, 영화 해설사가 작품과 관련된 심도 있는 이야기도 들려주는 유익한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올해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부평문화사랑방, 율목도서관, 연수도서관 총 세 곳의 상영관에서 독립 영화, 예술 영화 등 갖가지 기획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영관에 들어서자 사람도 적고 한적하여 금세라도 영화에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흥미로운 영화 주제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달 영화의 주제는 바로 ‘도시의 재발견’입니다. 영화 제목은 ‘서둘러 천천히’였는데, 모순적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에 끌려, 어떤 영화일까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 영화는 인디밴드인 ‘아나킨 프로젝트’가 덴마크의 자유 도시인 크리스티아니아에 가는 과정과 그 곳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과 나눈 대화와 일상을 다큐로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속 ‘아나킨 프로젝트’는 예술 활동 외에도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고충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찾는 과정을 영화를 통해 그려낸 작품입니다. 덴마크의 ‘크리스티아니아’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그 속에서 아나킨 프로젝트는 ‘느린 서두름’이라는 해답을 찾게 됩니다.

영화를 감상한 후, 영화 해설사인 큐레이터의 영화 설명이 이어졌고, 관객들과의 대화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밴드의 이름이 왜 ‘아나킨’일까?”에서부터 “실제 크리스티아니아는 어떤 도시일까?”라는 물음까지, 여러 질문과 예상들이 오고갔습니다. 자주 접할 수 있는 영화 장르가 아니었기에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었지만, 간간이 들리는 음악과 영상이 조화를 이루어 매우 흥미로웠고, 이런 형태의 문화 활동을 처음 접하게 되어 꽤나 신선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인천,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이런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고,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통해 한 편의 영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되어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 인천의 문화 지도 문화와 향수의 주역, ‘웃터골’

글 · 구자인혜(자원봉사자)

사진 · 김명순(자원봉사자)

문화는 인류가 자연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해 나가며 자신을 실현시키는 순간부터 가지게 되는 종교, 사회, 경제, 예술, 철학, 과학과 같은 모든 산물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곤 한다. 또한, 원형(原型)이란 말은 모습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바뀌기 이전의 단순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본디 모양’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문화 원형(文化原型)’은 민족이나 지역의 특정한 카테고리 안으로 묶을 수 있는 단위가 되며 다른 지역, 다른 민족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 같은 본질을 가진 묶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인천에는 구석기시대부터 근대에 걸친 상당한 문화유산들이 산재한다. 앞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돌려 옆과 뒤로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역사적 맥락과 조상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다. 유형으로 국보, 보물, 사적, 지방 문화재 등으로 연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형태는 없으나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정신적 의미를 지닌 것들도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생활하며 생각과 삶의 질에 알게 모르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1920년대 제물포고등학교 자리인 인천 웃터골의 모습.  
당시 운동장에서는 인천팀과 서울팀, 일본팀과의 교류전 등이 열렸다.  
[인천광역시 제공]





‘웃터골’은 현재 제물포고등학교의 운동장이다. 제물포고등학교가 위치한 응봉산 분지가 지대가 높아 위의 터, 높은 터라는 뜻으로 ‘위의 터’에서 ‘웃터’로 불리다 ‘웃터골’이란 지명이 되었다고 한다. 도시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인천의 중심인 응봉산은 시내 어디에서 보아도 산등성이와 골짜기가 높았다. 평지에서는 우뚝 솟아 높게 보이지만 막상 이곳에 오르면 분지형이며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방이 지대가 높아 천연의 스타디움으로 멋진 경기장이었다. ‘웃터골’은 1920년부터 1935년까지 15년 동안 인천공설운동장으로 쓰였다.

경인 기차 통학생들을 중심으로 행해진 독립운동과 일제 저항 의식은 ‘한용단(漢勇團)’이란 단체를 만들었다. 인천공설운동장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축구와 야구 경기가 행해졌다. ‘한용단’은 야구 기술과 단체 훈련을 통해 기량을 쌓았는데 이는 오늘날의 인천 야구의 원조가 아닐까싶다. 이외에도 웃터골에서는 육상, 유도, 수영, 정구, 권투 등 다방면의 체육인들을 육성되었다.

관중들이 자연스레 운동경기를 지켜볼 수 있었던 자연의 지리적 여건은 웃터골을 천연의 그라운드로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야구와 축구뿐만 아니라 육상 경기, 자전거 경주대회, 학교 운동회, 연합 체육 제전 등 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운동경기가 행해지곤 했다. 그때의 상황을 인천의 언론인 고일(高逸)선생은 「인천석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웃터골’은 인천 청년 운동의 발원지이다. 인천 시민에게 민족혼의 씨를 뿌렸고 민주주의의 묘목을 심었으며, 항일 정신을 드높이 들어 8·15 광복의 첫 장을 연 인천의 애국 투사들이 육성된 곳이다. 독립투사였으며 교육자인 길영희(吉瑛義) 선생이 ‘웃터골’에 인천중학교와 제물포고등학교를 세우셨으니 그 명맥이 공공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만석동 파출소 근방에서 엄복동, 조수만이 참가한 초기 자전거 경주 대회도 나중에는 이곳 웃터골로 자리를 옮겨 큰 인기를 끌었으며, 해마다 봄, 가을에 여는 초등학교의 운동회와 연합 체육 제전 등이 여기서 베풀어졌다. ‘스탠드’마다 차일과 천막이 즐비했었고, 학생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 구경하며 음식을 먹고 즐겼다.

이처럼 웃터골에서 모든 야외 집회의 실마리를 푼 것이 경인 기차 통학생들의 야구 연습과 시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선 안 된다. 웃터골이 유명해진 것은 한일 대결 야구 경기 때문이었다. 시합이 펼쳐지면 환호를 입은 남녀노소의 모습이 장관을 이루며 웃터골 주위에 진을 쳤었다. ‘한용단’ 단장 광상훈 군은 우리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야구단의 책임자로 진두 시위를 하였다. 손에 땀을 쥐고 경기에 열광하고 있는 관중들은 일본인 심판의 공정치 못한 판정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쟁취했을 때는 성난 파도와 같이 떠나없이 흥분하여 무서운 함성과 더불어 돌격하듯 환호했다. 이는 노호(怒呼)의 합창이었으며, 육박의 난무였다. 운동 경기의 승부 때문에 빚어진 이 같은 항일 투쟁은 마침내 일본 경찰과의 충돌을 불렀고, 관중들은 검거되거나 해산 당했다.

— 「인천석금」 내용 중 일부 발췌 —

3·1운동 이후에도 인천에서는 청년 운동이 꾸준히 이어졌다. 정미 공장과 부두 노동자 파업을 토대로 인천 총파업이란 사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근대 개항 이후 조계지가 설정된 후 늘 갯길에서만 머무르던 인천 시민들이 일으킨 가장 시원하고 통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웃터골’은 인천이 근대사회에서 현대 시민사회로 옮겨오는 과정의 주춧돌 역할을 해 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무더운 여름날, 폭염이 무색하게 웃터골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제물포

고등학교 신축 공사로 통행이 제한되었다는 팻말을 가슴에 달고 점점 퇴색되어 가는 동네와 함께 조용히 가라앉고 있는 느낌은 왜일까. 조선의 야구와 스포츠의 초석이었고 항일 투쟁의 선봉으로서 왕성하고 용맹스럽던 그 날의 표효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인간의 정체 의식(a sense of identity)은 역사의식과 장소의식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 자신이 어느 부류에 속하고 그 부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부류들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꾸준히



현재 제물포고등학교  
신축공사로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웃터골’의 모습

묻고 답하는 가운데서 자신에 대한 자각이 싹튼다. 공간이나 위치에 대한 자각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형태에 대한 깨달음을 암시한다. 그들이 존재했던 시대와 장소는 자연적인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그 곳에 있는 사물이나 정신으로 확인되며, 유물과 전통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경험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문화유산이라 말한다. ‘웃터골’은 지금의 시점에서 나라를 받듯이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고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정신 문화유산이 아닐까.

## 박물관 소식 전시 / 교육 / 행사

### 시립박물관

#### 기획 특별전 인천, 어느 날 영화가 된다



내용 영화 속 인천, 인천 속 영화를 통해  
인천의 모습 재조명

기간 2016. 9. 6(화)~11. 20(일)

장소 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문의 ☎ 032-440-6733

#### 상설 음악회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기간 2016. 3~12월,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 4~5시

장소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운영 방식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운영,  
전회 무료공연(1회당 200명)

#### 공연 일정

## 조선미술사와 떠나는 국악 여행

날 짜

10/ 9

분 야

무지컬

주 관

이모션콘텐츠

옛 전통음악과 전통미술을 알리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공연

## 김계희 밴드와 함께하는 생황 콘서트

날 짜

11/13

분 야

클래식

주 관

김계희 밴드

생황이 중심이 되어 재즈, 라틴, 왈츠, 탱고 등  
다양한 장르의 크로스오버 공연

## 캠머하우스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날 짜

11/13

분 야

클래식

주 관

타악양상블

생소한 여러 가지 타악기 비브라폰,  
마림바, 콘트라베이스, 카혼, 심벌의  
아름다운 선율과 멋진 퍼포먼스 공연

문의 ☎ 032-440-6735

#### 제18기 박물관대학 하반기 과정

주제 한국 근대사의 연인들

기간 2016. 9. 23(금)~11. 11(금) 중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대상 누구나

장소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내용 및 강사

날 짜	분 야	강 의 주 제	강 사
9/23	개 관	근대 '연애'의 탄생	김지영 (대구카톨릭대학교)
9/30	윤심덕 김우진	死의 찬미	이 철 (조선일보)
10/7	김환기 김향안	이름에 새긴 사랑의 언약	문정희 (한국미술연구소)
10/14	이중섭 아마모토 마사코	국경이 갈라놓은 內鮮의 結婚	최열 (서울대학교)
10/21	나혜석 최 린	정조는 취미다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10/28	이 상 금홍이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장용경 (국사편찬위원회)
11/4	문화유적답사	한기미술관 · 수향산방 · 이상의 집	-
11/11	유치환 이영도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	김용범 (한양대학교)

문의 ☎ 032-440-6732

### 송암미술관

#### 진로 체험 교육 꿈을 그리는 미술관



주제 학예연구사 진로 체험 교육

일시 2016년 학기중 상시

장소 송암미술관 강당 및 전시실

대상 중학교 단체 회당 25명 내외

신청 사전 전화 협의 후 신청서 접수

문의 ☎ 032-440-6782

### 어린이교육 알송!달송! 미술관



주제 십이지, 사군자를 바탕으로 한 전시 연계  
체험교육

일시 2016년 학기중 상시

장소 송암미술관 강당 및 전시실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단체 회당 25명 내외

신청 사전 전화 협의 후 신청서 접수

문의 ☎ 032-440-6782

### 한국이민사박물관

#### 기획 특별전 또 다른 이민, 해외 입양



내용 한민족 이민사의 한 축으로서 20여 만 명의  
해외 입양의 역사 조망

기간 2016. 8. 23(화)~11. 27(일)

장소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 032-440-4706

## 청소년 인천역사기행 포워로 가는 길



**내용** 1900년대 초 한국 공식 이민의 출발지였던 인천의 주요 장소 답사

**기간** 2016. 10~11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2~4시  
토요일, 10~12시

**장소**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

**대상** 관내 중학생(회당 30명 내외)

**신청**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 032-440-4709

## 검단선사박물관

## 기획 특별전 고르다 깨다 쓰다-인천의 구석기

**내용** 인천 지역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적과 유물을 한눈에 살펴봄

**기간** 2016. 7. 12.(화)~11. 13.(일)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비용** 입장료 무료

**문의** ☎ 032-440-6790

## 문화행사 제7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내용** 수채·유채·콜라주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아래 부문 중 택 1

- 1) 검단선사박물관 전시 유물 그리기
- 2) 검단선사박물관에서 있었던 일 그리기
- 3) 선사시대 상상화 그리기

**기간** 2016. 8. 13.(토)~9. 30.(금)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전시실 및 야외 전시장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참가비** 무료(단, 도화지 이외 화구 개별 지참)

**신청** 대회기간 중 박물관 방문하여 접수

**시상 및 전시** 2016. 10. 19.(수)

**문의** ☎ 032-440-6796~8

## 제1회 고고학 아카데미 고고유적으로 본 인천

**내용**

날 짜	주 제	강 사
10/13	고고유적으로 본 인천의 문화1 - 구석기 ~ 청동기시대	이승원 (한강문화재연구원)
10/20	고고유적으로 본 인천의 문화2 - 원삼국 ~ 삼국시대	권도희 (한강문화재연구원)
10/27	고고유적으로 본 인천의 문화3 - 고려, 조선시대 인천	박경우 (한강문화재연구원)
11/3	인천 지역 고고유적의 특징	박성우 (인하대학교 박물관)
11/10	고지도로 본 인천	전종한 (경인교육대학교)

**기간** 2016. 10. 13.(목)~11. 13.(목) 매주 목요일,  
10~12시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제2전시실

**대상** 일반 시민

**참가비** 무료, 교재 제공

**신청**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유선 접수도 병행

**문의 및 접수** ☎ 032-440-6797

## 가족체험 교육 선사시대 이야기

**내용** 선사시대 가방 만들기

**기간** 9~12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4시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체험학습실

**대상** 6세~초등학생 자녀 동반 가족

**재료비** 1인당 5,000원

**신청** 매일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 032-440-6797

## 컴팩스마트시티

## 화·생·방·전(火·生·防·展) 불, 성냥, 소방 그리고 인천

**주제** 불의 생성과 소멸로 보는 근현대 인천 도시 생활사

**기간** 2016. 8. 30.(화)~11. 27.(일)

**장소** 컴팩스마트시티 기획전시실1·2

**자료** 성냥, 불, 소방 관련 사진 및  
실물 자료 1,000여 점

##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 다과회 '인천 미학'

**내용** 인천의 다양한 문화예술 감상 및 공유

**일시** 2016년 매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 7~8시 30분

**장소** 컴팩스마트시티 3층 세미나실

**대상** 성인 30명

**신청**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무료

**문의** ☎ 032-850-6026

날 짜	구 분	주 제	강 사
9/28	풍물	유랑의 예술, 풍물을 만나다	지운하 (계양구립풍물단)
10/26	문학	인천의 시를 읊다	윤제림 (서울예술대학교)
11/30	연극	인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	최규호 (작은극장 돌체)
12/28	음악	대중가요, 인천을 노래하다	장유정 (단국대학교)

## 성인 교육 제4기 컴팩 인문(仁文)아카데미

**주제** 불씨, 문명으로 꽃 피다

**일시** 2016. 9. 29.(목)~11. 1.(목)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장소**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대상** 시민 80명

**비용** 무료

**문의** ☎ 032-850-6026

## 가족 교육 특별전 연계 체험

**주제** 기획 특별전 '화·생·방·전(火·生·防·展)'  
감상 및 만들기 체험

**일시** 2016. 10. 8.(토), 10. 22.(토), 11. 12.(토),  
11. 26.(토) 10~12시 (총 4회)

**장소** 컴팩스마트시티 3층 세미나실

**대상** 초등학생 포함 가족 1회당 10팀

**비용** 무료

**문의** ☎ 032-850-6026



## 램프식 환등기

### 소장 유물

근대, 11×22×37cm

구한말 서구 근대 문물의 유입은 조선 백성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특히 근대적 영상매체의 등장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양상의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했다. 카메라, 활동사진, 입체경, 환등기 등 다양한 양태의 근대 영상매체들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이내 경이로움으로, 중국에는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였다. 이들 영상매체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활동사진이다. 활동사진(motion picture)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사진 즉 영상을 말한다. 하지만 1900년대 활동사진은 영화 상영과 같은 여가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용으로 쓰이거나 유료 상영회 등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대중화의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이때 대중적으로 가장 활발히 이용된 매체가 바로 환등기이다. 환등기라는 것은 환영과 같은 상을 투영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는데 대체로 그림, 사진 등의 이미지를 렌즈를 이용하여 정지 상태로 벽이나 종이에 투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환등기에 대한 기록은 이미 19세기 말엽에 의료 선교사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의 편지(1897년)와 『황성신문』 1899년 12월 22일자 기사에서 나타난다. 특히 『황성신문』에서는 일요 환등(日曜幻燈)

제목의 기사에서 “영국인 뱃국 씨가 지난 날 저녁에 흥화학교(興化學校) 주야학원(晝夜學員)을 초청하여 다과를 접대하고 환등방(幻燈房)을 개설하였는데...”라고 하여 서구 선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환등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환등기의 활용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더욱 보편화·대중화되어 간다.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에는 1900년~1945년까지 위생교육, 농사교육, 환등 강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천에서의 환등기와 관련된 기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천의 환등기 관련 기록들은 주로 환등회 개최에 대한 것들로 1910년대~20년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매일신보』 및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서는 인천부청, 인천서 등의 주최로 위생교육을 위한 환등회를 진행한다거나, 농업과 관련한 환등 강연회 개최 등이 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인천 지역의 환등을 이용한 행사는 관(官)에서 개최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 『동아일보』 기사에는 인천이나 경성의 강화 출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장여단과 강화소학회 등 민

간단체의 활동이 나타나 있다. 특히 『동아일보』의 1920년 8월 14일 교육장여단 관련 기사에서는 “부내 잠두 예배당에서 교육 강연회를 개(開)할 새...(중략)...김명수 씨의 바이올린 독주와 준비하였던 환등을 마치고...(중략)...남녀 청춘 일천삼백여 인의 박수갈채는 前無의 성황을 이루고...(이하 생략)...”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를 통해 볼 때, 강화 지역 교육 계몽 활동에서도 환등기를 이용한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환등기는 가장 대중화, 일반화 된 교육 도구이자 근대적 영상매체로서 또한, 근대적 생활문화와 교육의 매개로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이번에 소개하는 환등기는 1900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조선 백성들이 근대문물을 접하던 시기에 그 스스로가 근대의 산물이자 근대문화의 전파자로서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

이제 환등기는 박물관의 유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하지만 환등기는 여전히 스스로를 통해 조선 백성이 체험했던 근대와 근대문화를 전해 주고 있다.

글 • 정민섭(유물관리부)